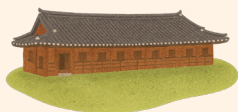


충청북도

말씀의 길



벽돌 위에 새긴 마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Contents



PART 01

충청북도 어울리길이란?



PART 02

개신교가 궁금해요!



PART 03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요!

말씀의 길을 떠나기 전에!

정해진 시간도, 짜여진 일정도 없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탐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에는 **각 장소의 개방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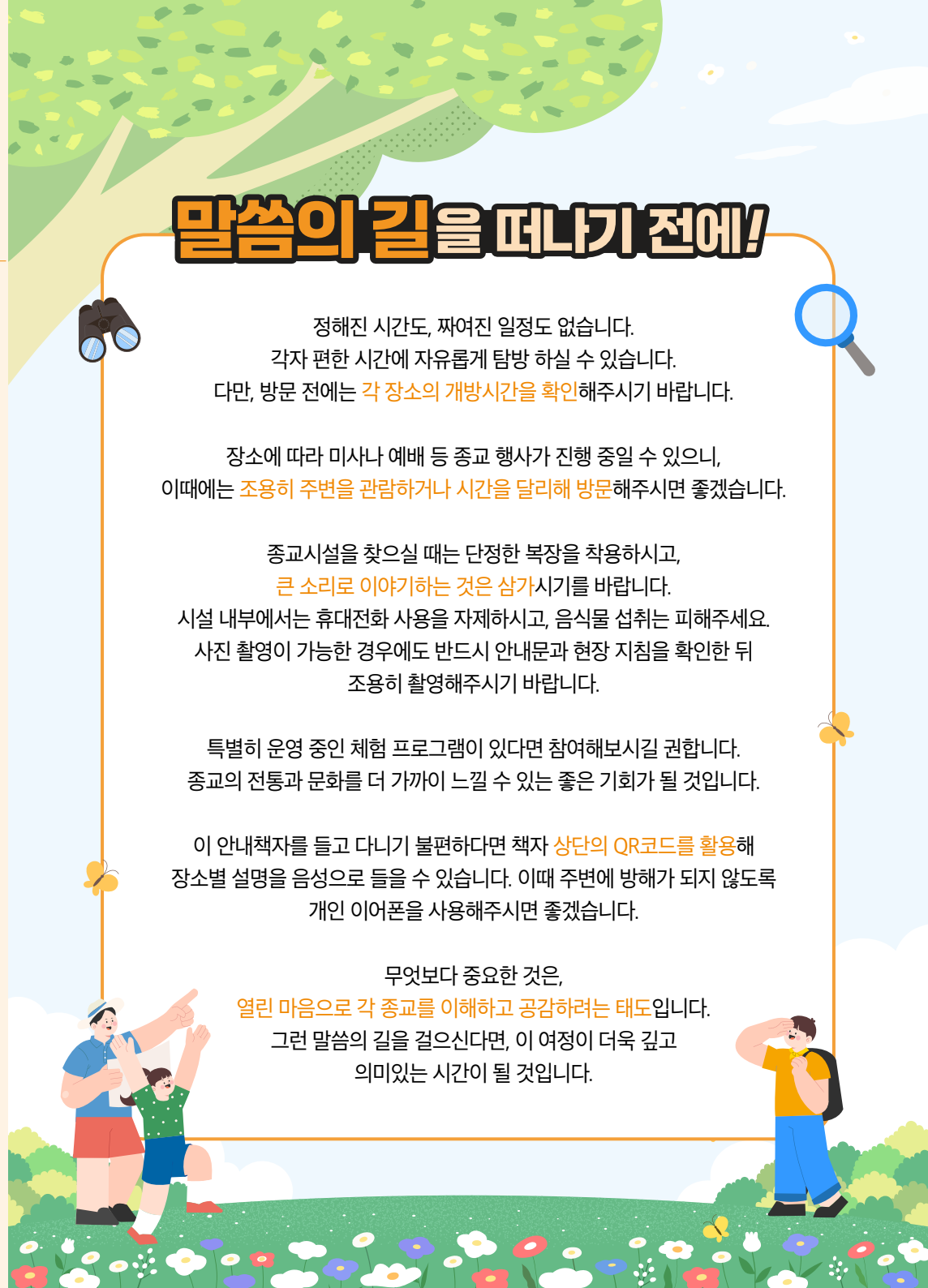
장소에 따라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이때에는 **조용히 주변을 관람하거나 시간을 달리해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시설을 찾으실 때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시고, 음식물 섭취는 피해주세요.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내문과 현장 지침을 확인한 뒤
조용히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종교의 전통과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안내책자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책자 **상단의 QR코드를 활용**해
장소별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 이어폰을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각 종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말씀의 길을 걸으신다면, 이 여정이 더욱 깊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PART 01 어울리길이란?



홍보영상QR



어울리길 소개

어울리길, 함께 걷는 평화의 여정

충청북도는 오래전부터 백제·고구려·신라가 맞닿던 자리이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중원문화'라는 독자적인 빛깔을 지켜온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종교문화유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서로 다른 종교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며 공존해 왔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바램은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길 말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어울리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만나 하나로 이어지는 회전교차로에서 영감을 얻어, 두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종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는 만남의 길,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희망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차이를 넘어선 화합의 가치를 새기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길 전체코스



PART 02 개신교가 궁금해요!



개신교란 무엇일까요?

살롬!

히브리어로 '평화'와 '안녕'을 뜻하는 '살롬'은 개신교에서 자주 쓰는 인사입니다. 서로의 삶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네는 인사이지요. 이러한 인사는 서열이나 권위가 아닌 형제·자매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하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종종 '살롬'이라 인사하며 친근함을 나눕니다.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생겨난 기독교의 한 분파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등 여러 교단이 있으며, 각 교단 간 교리와 예배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구원자)로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죄(罪)'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甦(부활)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고 믿는 것이 개신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개신교가 강조하는 핵심가치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마침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지요.

개신교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죽은 뒤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가진 다양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포함하지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통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평화가 자신에게만 머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웃과 자연, 그리고 사회 속에서 화합하고 공존하며 협력하는 온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개신교가 걸어온 총복의 첫 걸음

개신교는 1890년대 후반부터 서울에서 시작해 점차 남쪽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총복 역시 1900년 전후에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총복의 개신교는 신도들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 출발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당시 청주읍 신대리에 살던 보부상 오천보, 문성심, 오삼근 등은 장사를 위해 안성 죽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개신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산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외국인인 바로 민노아(F.S. Miller) 선교사였습니다. 민노아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세 사람은 이때부터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이후 청주로 돌아온 이들은 신대리 주막에 태극기와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900년(고종 37) 12월에 청주를 방문해 이 소식을 들은 민노아 선교사는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찬규 조사를 보내 오천보의 집을 매입하고 1901년에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가 바로 총복 최초의 교회인 신대교회입니다.

신대교회가 세워진 후 민노아 선교사는 청주에 선교부(미션 스테이션)를 설립하려 하였습니다. 1904년 탐동과 금천동 일대에 땅을 사들이고, 1905년 가족과 함께 청주로 내려와 탐동 언덕에 선교관(양관) 6동을 세웠습니다. 또한 1866년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청주 옥터를 매입해, 이곳에 총복 최초의 조직교회인 청주읍교회(현 청주제일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종교활동에 그치지 않고 청주 최초의 근대 학교인 청남학교와 청주 최초의 근대 병원인 소민병원을 설립하여 교육과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신교는 청주를 중심으로 충주·괴산·보은·옥천·영동, 나아가 세종 조치원·충남 홍성·대전 등 충청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PART 03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요!

이 길은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내리며 지역사회를 바꾸어온 발자취를 따라 걷는 역사문화 탐방 코스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세워진 개신교 건축물마다 믿음과 소망이 스며있고, 선교사들의 교육과 의료, 여성운동 등 신앙의 실천이 지역 공동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따라 걸으면, 벽돌 위에 새겨진 마음처럼 믿음이 이웃과 사회를 향해 뻗어나가며 남긴 발자취가 마음에 스며듭니다.

‘말씀의 길’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시대와 신앙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나는 따스한 여정입니다.





청주 탐동 양관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탐동 언덕에 올라서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흔히 “양관(洋館)”이라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서양식 건물’이란 뜻이지요. 이곳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청주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 충청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지은 건물입니다.

이곳에 양관을 세워 충북 개신교의 바탕을 이룬 인물은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입니다. 1904년에 청주읍 동편의 언덕땅을 사고 1905년 여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여 1932년까지 55,000평의 땅에 여러 동의 서양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선교기지, 선교사 주택, 병원,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선교와 의료,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붉은 벽돌의 이 건물들은 언덕 아래 기와집이나 초가집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얀 울타리에 파란 잔디가 깔려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은 한국인들에게는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붉은 벽돌에 기와지붕을 얹은 양관은 한옥과 서양식이 혼합된 과도기적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근대 선교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약 30년 간 충청 지역 선교 거점으로 쓰이던 양관은 이후 청주사범학교 기숙사, KBS 청주 방송국, 인민군 야전병원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신학원의 역사기념관과 상담실 등으로 쓰이며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을 넘어, 서양의 근대문물이 전해지는 통로이자 교육·의료·건축 등을 통해 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탐동 양관은 1983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주 탐동 양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학교·교회·병원·선교관·선교사 묘지가 함께 어우러진 청주 선교기지 유적의 한 축이었습니다. 당시 청주 지역에서 서양 문화를 접목하고 새로운 근대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청주 탐동 양관이 세계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이미 상위 예비목록에 올라있어 2030년 안에는 등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과 평등사상을 전하며 지역 근대성의 발원지가 된 이곳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6동의 양관 중 1호와 2호는 일신학원의 울타리 밖에 있으며, 3~6호는 일신학원 내부에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꼭 사전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루카복음 24장 36절)

탐동 1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탐동로32번길 17-6
개방시간 : 개방불가(개인소유)



탐동 1호 양관

솔타우 기념관

1호 양관은 1921년 청주에 도착하여 18년 동안 활약하였던 소열도(蘇悅道, T. S. Soltau) 선교사가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하여 솔타우 기념관 혹은 소열도 기념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발자취가 남아 있는 이 공간은 지금도 당시 선교사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 여기서 잠깐!

- Q.** 개신교인들은 꼭 결혼할 때 교회에서 해야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집이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꼭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정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동 2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탐동로24번길 9
개방시간 : 수, 금, 토(상시) / 월, 화, 목(오전만 개방)
문의사항 : 청주성서신학원 043-253-6414



탐동 2호 양관

퍼디 기념관

현재 청주 성서신학원으로 사용 중인 2호 양관은 '퍼디 기념관' 또는 '부레선 목사 기념 성경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레선(Jason G. Purdy, 1897~1926) 선교사는 1923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청주 선교부에 부임하여 온 힘을 다해 선교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926년 봄, 영동 조동교회 순회 방문하던 중,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몽고메리 여사는 한 달 후 미국으로 귀국하여 친지와 교우들, 전국 주일학교의 성탄절 헌금을 모아 청주 선교부로 보내왔고, 그 정성이 모여 마침내 1932년 성경학원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퍼디 기념관'이라 부르는 것은 젊은 선교사의 희생과 부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탐동 3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 (청주 일신여자중학교 내)
 개방시간 : 학교 사전 연락 후 관람 가능
 문의사항 : 일신여자중학교 043-256-7322



탐동 3호 양관

밀러 기념관

1910~1911년에는 양관 두 채가 더 지어졌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4호 양관을 중심으로 북쪽에 한 채, 남쪽에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북쪽에 세워진 이 건물은 오랫동안 민노아 선교사 가족이 살았던 공간으로, 그의 선행을 기리며 '밀러 기념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탐동 4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내)
 개방시간 : 학교 사전 연락 후 관람 가능
 문의사항 : 일신여자고등학교 043-256-7560



탐동 4호 양관

포사이드 기념관

1906년 완공된 4호 양관은 6동의 양관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윌크스 베어(Wilkes Barre)에 사는 친구들이 보내준 500달러와 시카고에 사는 포사이드(H. M. Forsythe) 부부가 보내준 3,000달러로 세워졌으며, 기부자인 포사이드 부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포사이드 기념관은 양관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서양식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붉은 벽돌과 아치형 유리창 등을 제외하면, 기와지붕과 처마 장식, 주춧돌을 사용한 점 등이 전통 한옥과 흡사하지요.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

4호 양관이 거의 완성될 즈음인 1906년 8월, 청주에 큰 홍수가 나서 무심천이 범람해 청주 시내 200여 가구가 물에 휩쓸리는 난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재민들은 탐동 언덕 선교 기지로 피난하였는데, 민노아 선교사는 이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양 선교사에 대해 부정적이던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선교 활동의 길도 한층 넓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2절)

현재 이 건물은 ‘충북 기독교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을 담은 옛 사진과 기록들, 실제 사용했던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탐동 4호 양관 내부

! 여기서 잠깐!

Q. 교회에 다니면 술, 담배는 진짜 못하나요?

A.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술은 위장병을 앓고 있던 디모데 목사에게 약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충북 최초의 선교사 민노아 목사는 금주운동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술을 통해 가정이 망가지고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노아(F. S. Miller, 1866~1937) 선교사는 1892년 뉴욕 유니온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 그해 11월 미국 북장로 교회 해외 선교부의 임명을 받아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그는 언더우드가 설립한 “예수학당”의 제 3대 학당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학당 이름을 “민노아학당”으로 바꾸고, 이곳에서 일반교육과 실업교육 등 실용적인 교육에 힘쓰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성경번역위원회의 서기와 위원장을 맡아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찬송가를 편찬할 때, 장로교 대표로 참여하여 최초의 연합찬송가를 편찬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편찬한 찬송가는 1908년부터 1932년까지 25년 동안 한국교회 예배에서 널리 사용하였으며,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집의 최다 작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곡 :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427장 “맘 가난한 사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에서 11년을 활동한 민노아 선교사는 1904년, 청주에 선교부를 설립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과 충청 지역 선교에 힘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청주에 양관 6동을 건축해 선교사들의 거처와 업무 공간 및 교육 공간, 근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지요. 특히 4호 양관을 지을 때는 천주교인들이 박해받던 옥터의 바닷돌을 출입구에 깔고, 백두산 금강송으로 대들보를 만들었으며, 탐동 언덕의 흙으로 벽돌을 구웠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정서와 전통을 중시하는 마음을 건축물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민노아 선교사는 경기와 충청권에 4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남학교(청주), 청동학교(청천), 청북학교(목방), 청서학교(신대), 청신여학교(청주), 객신여학교(괴산) 등 근대 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또 소민병원을 세워 근대 의료를 시작하였으며, 한강 이남의 5대 장날로 유명했던 청주 시장에서 매주 40여 종의 전도지를 제작해, 연간 10만부, 총 100만부 이상을 배포함으로써, 개신교의 교세 확장과 함께 충북의 근대 교육 및 사회복지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
_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민노아 선교사가 작곡한 찬송가를 들어볼까요?



찬송가 음원 QR

찬송가(Hymnal)는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 정체성을 나누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 등 초기 선교사들은 찬송가 번역과 작곡을 통해 개신교의 상징성과 복음을 정서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일 379) **주의 말씀 듣고서** 204

성경
민노아(F. S. Miller), 1905
보통으로
주님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 7:24)
MORE TO FOLLOW: 7&7 & D REF.
P. P. Bliss (1838-1876)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담고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담고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집을지을 갈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부딪 쳐도
집을지을 갈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부딪 칠때
모래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상을 줄때

후렴
반석위에 세운집 무너지지 않네 잘짓고 잘짓세
모래위에 세운집 크게무너 지네 영영상벌 주리

우리집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집잘 짓세

쉬운 기악코드(capo=1st) E♭→D B♭→A A♭→G

탐동 5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내)
개방시간 : 학교 사전 연락 후 관람 가능
문의사항 : 일신여자고등학교 043-256-7560



탐동 5호 양관

맥클렁 성경학원

5호 양관은 1910~1911년 무렵 지어진 양관 두 채 중 하나입니다. 4호 양관을 중심으로 북쪽에 한 채, 남쪽에 한 채가 들어섰지요. 이 중 남쪽에 세워진 이 건물은 청주선교기지 성경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미국 캔터키주 위치타(Wichita)에 살던 맥클렁(J. S. McClung) 부부는 해외 선교의 꿈을 꾸다 일찍 세상을 떠난 두 아들, 그레이스와 로버트를 기리며 800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이 건물을 세우고, 기부자의 이름을 따 '맥클렁 성경학원(McClung Bible Class Building)'이라 하였습니다.



탐동 6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내)
 개방시간 : 학교 사전 연락 후 관람 가능
 문의사항 : 일신여자고등학교 043-256-7560



던컨 기념관

6호 양관은 우리에게 소민병원(蘇民病院)으로 더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청주 선교부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공감한 미국 뉴욕의 던컨 (J. P. Duncun) 부인이 5,000달러를 흔쾌히 기부하면서 1910년 4월부터 병원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1912년 7월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부자인 던컨 부인의 선행을 기리고자 던컨기념병원(Duncun Memorial Hospital)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 던컨 부인의 추가 지원으로 진료실과 수술실 등을 갖춘 근대 병원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지역사회에 큰 빛이 되었지요.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개신교의 상징물

십자가(Cross)

예배당의 가장 중심에 놓이는 개신교의 대표 상징물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닌, 희생과 사랑의 표상으로 여겨집니다.

! 여기서 잠깐!

- Q. 그런데 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나요?
 A. 개신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셧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걸려있 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Bible)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교회 활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교육·상담·선교 등 에서 사용합니다. 설교와 교육의 핵심 도구로서, 진리와 삶의 지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최대 기념일

개신교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가장 기쁜 날이자,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며, 부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지역 전체가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청주를 비롯해 충북 전역의 개신교연합회가 주관하여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새벽이나 오후에 모여 진행되는 이 연합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청주 제일교회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개방시간 : 9:00~18:00 (본당 건물 외 상시개방)
문의사항 : 043-256-3817



청주 제일교회



청주 제일교회의 시작은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와 김흥경 조사가 힘을 모아, 청주 남문 밖에 여섯 칸짜리 초가집을 마련하고 세운 '청주읍교회'가 그 첫걸음으로, 오늘날 청주 제일교회의 뿌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1909년(순조 2) 박정찬 장로를 임명하며 충북 최초의 조직교회로 발전하면서 충북 선교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원래 이곳은 청주영장(營將) 관사와 옥사가 있던 곳으로,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시기에 수많은 신자가 신앙을 지키다 고문과 순교를 겪은 천주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1906년 민노아 선교사와 김흥경 장로, 초창기 교인 김원배가

이 땅을 사들여 한옥 예배당을 세우면서, 고통과 죽음의 장소를 생명과 복음의 공간으로 바꾸는 신앙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예배당은 한옥 구조에 고딕양식을 더해 동서양의 문화를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주 제일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충북 근대교육과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우리나라와 충북 지역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인 김원배, 방흥근은 청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인 '광남학교'를 세웠고, 민노아 선교사의 부인 도티(Dottie) 여사는 '청신여학교'를 운영하며 충북 최초의 여성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어 세광중고등학교·청신고등공민학교·상당유치원·성경학원·YMCA·YWCA 등 수많은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의 요람이 되었고, 독립 이후에는 사회 안정과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북한군의 지휘 본부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당시 미군의 탈환 작전 중 교회 건물에 남은 총탄 자국은 오늘날까지 그 격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언합니다. 이후 1960~1980년대에는 교회 청년과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청주 지역 시민 운동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청주 제일교회도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희망무지개 자원봉사단, 2012년 푸드뱅크를 세워 지역의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와의 화해와 연대를 위해 2021년에는 천주교 순교지 정비사업에 함께 하며 추모 공원을 조성하였고, 민주화운동 열사인 최종철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주 제일교회는 지난 시간 속에서 늘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주 망선루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개방시간 : 상시개방



청주 망선루



청주 중앙공원 북편에 우뚝 서 있는 청주 망선루(望仙樓)는 고려시대 관아 건물로, 본래는 청주 객관 동쪽에 자리한 누각이었습니다. 망선루의 원래 이름은 '취경루(聚景樓)'였으나, 조선시대에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망선루(望仙樓)'로 고쳐 부르며 현재에 이르고 있지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시를 읊고 세상의 정세를 논하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망선루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청주면 사무소, 청주여자 공립보통학교 건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21년, 일제는 청주경찰서 내 무덕전(武德殿)을 새로 짓는다는 이유로 망선루를 헐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유산을 없애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때 청주청년회의 회장이자 민족운동가였던 김태희(金泰熙, 1877~1937) 선생이 앞장서서 망선루를 사들여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청년회는 청주 선교부의

민노아 목사와 소열도 목사, 청주읍교회의 함태영 목사를 찾아가 망선루를 옮길만한 장소를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제일교회 구내 공터로 옮겨 청남학교 건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망선루를 옮기기 위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청년회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망선루 이전은 단순히 건축물 보존을 넘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사업이니,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청주청년회·시민·청남학교 교사와 학생·청주 선교부와 교인, 심지어 외지 후원자들까지 뜻을 모은 결과, 망선루는 무사히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제일교회 안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망선루는 더 이상 누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1, 2층의 탁 트인 사면 공간을 벽돌로 막아 벽을 만들고 유리 창문도 달았습니다. 1층 중앙에 교무실을 두고 양쪽 동서로 교실을 배치했으며, 2층에 3개 교실을 만들어 1924~1941년 동안 청남학교 건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청남학교는 청신여학교와 합쳐 청주 유일한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망선루는 당시 청주에서 근대적인 사립 초등학교 교육장이 되었답니다. 이후에도 이 건물은 야학 등의 교사(校舍)로 사용되었으며, 강연회·한글 강습회 등 각종 집회를 여는 공회당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1997년의 청주 망선루_충청북도 제공

해방 후에는 세광중등학교·청신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YMCA회관, 해방 후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북지부, 청주삼각소년단(대한 보이스카우트의 전신) 등 여러 단체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시민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망선루는 단순한 역사적인 건축 유산을 넘어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이자, 교육·사회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요.

77년간 청주 제일교회 안에 있었던 망선루는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낡아 무너질 위험에 처했고, 이에 청주시는 다시 한번 건물을 옮겨 복원하기로 결정하였지요. 1999년부터 건물을 해체하여 2000년 중앙공원 북편에 새롭게 세웠습니다. 오늘의 망선루는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은 채, 청주의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목사님은 결혼을 하나요?

A. 네, 개신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에 따라, 목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목사님은 월급을 받나요?

A. 물론입니다. 목사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의 성도들이 일정한 생활비를 책정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개신교의 문화

예배 전 조용한 기도와 침묵

개신교인은 예배당에 들어서며 조용한 기도나 침묵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준비하는데, 이는 명상에 가까운 '영적 집중'의 예절입니다.

식사 전 감사기도

함께 식사할 때는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문화가 있으며, 이는 음식에 대한 감사와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Worship)

주일예배는 성경 봉독, 찬송, 기도, 설교, 축도로 이루어집니다. 회중은 말씀을 경청하고 찬송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예배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원하면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세례 (洗禮)

개신교 입교의식으로, 성인 혹은 아동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상징적 의례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이때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이 '정화'와 '새로운 삶'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식 (Holy Communion)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빵과 포도주(또는 포도즙)'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의 참여는 자유로우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음식 나눔이 아닌, 공동체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는 상징 행위로 의미가 있습니다.

혼례 및 장례

개신교식 결혼은 서약과 축복의 중심에 있으며, 장례는 소망과 위로의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례는 검소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며, 공동체의 기도와 참여를 중요시합니다.

! 여기서 잠깐!

Q. 십일조는 꼭 내야 하나요?

A. 십일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래 십일조는 성직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를 위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한 중요한 재정(교회운영, 교육, 선교, 구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 국가등록문화유산

주 소 : 진천군 진천읍 문화3길 72

개방시간 : 상시개방

문의사항 : 043-533-2246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1890년(고종 26) 조선에 첫발을 디딘 영국성공회 선교사들은 서울과 강화도를 거점으로 선교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였어요. 대한성공회의 2대 주교였던 단아덕(Arther B. Turner)은 1905년 충청북도 진천을 중부 내륙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였고, 1907년 김우일(Wilfred N. Gurney) 신부를 보내 성당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08년, 60칸의 규모의 대한성공회 진천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대한성공회 진천성당(1920년대)

진천성당은 본래 ‘ㄱ’자형 평면의 순수 한옥 구조에 용마루 끝에 십자가를 단 독특한 모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1920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1923년 유신덕(George Ernest Hewlett) 신부의 감독 아래 새롭게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1976년 진천읍 도시계획에 의하여 같은 부지 내로 이전하였던 것을, 2003년 다시 현재의 자리로 또다시 이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천성당은 정면 4칸, 측면 8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입니다. 동쪽에 출입구, 서쪽에 제단을 두었고, 내부는 두 개의 기둥으로 예배 구역인 신랑(身廊)과 통로인 측랑(側廊)을 뚜렷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건물 양식을 ‘바실리카식’이라 부릅니다. 또한 진천성당은 목조 한옥 구조에 서양 교회 건축양식을 절충해, 동서양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귀중한 건축물로 평가받습니다.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 드러나는 신성함과 공동체 정신은 성공회가 지향해온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당이 세워진 이후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 의료가 펼쳐졌습니다. 1908년에는 학당과 수녀원을 세웠고, 1909년에는 노인산(Arther F. Laws) 의사 부부가 애인병원(愛人病院)을 설립하였습니다. 1912년에는 신명학교를 세워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으며, 1929년에는 진천유치원까지 설립해 유아교육에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성당 마당에는 큰 가마솥 다섯 개가 걸려 늘 끼니를 마련했는데, 1923년 당시 교인 수가 3천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애인병원은 ‘사람을 사랑한다(愛人)’는 이름에 걸맞게 가난한 이들을 차별 없이 돌보며 사랑의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입원실과 수술실까지 갖춘 당시로서는 드문 근대식 의료 시설이었고, 안과 진료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노인산 의사의 의술이 뛰어나 외지 환자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으며, 영국에서 많은 약품을 조달받아 진천 등 여러 곳의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41년 일제가 선교사 추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병원도 이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선교사의 의료활동_ 국가유산청 제공

비록 일제의 탄압 속에 문을 닫아야 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진천성당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랑으로 병든 이를 돌보고, 교육으로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며, 어려운 시대에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불씨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진천성당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역사와 믿음을 되새기며 찾아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성공회와 개신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성공회나 개신교 모두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켜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일자 영국 왕정이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서 노선을 정하면서 ‘중도의 길’을 택하였는데, 신앙의 내용은 개신교를 선택하고, 교회의 체제는 천주교의 체제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음성 한독의약박물관

주 소 :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78

개방시간 : 9:00~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명절 연휴)

홈페이지 : <https://www.handokmuseum.com>



음성 한독의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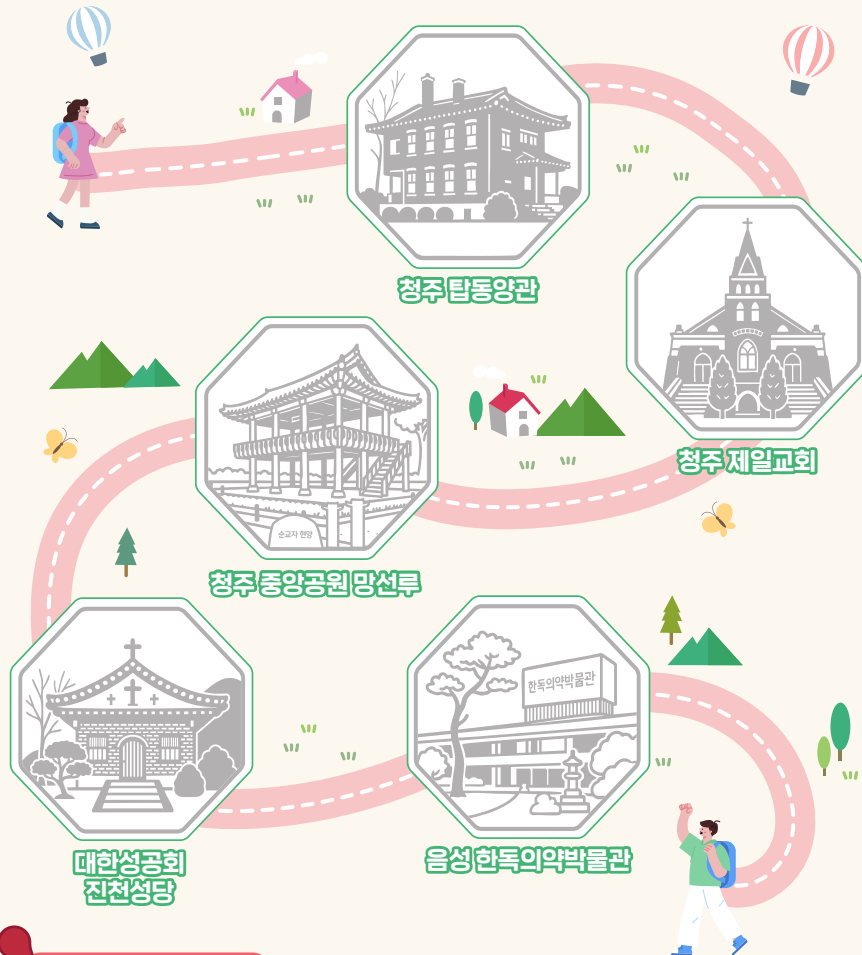
한독의약박물관 제공

한독의약박물관은 1964년 (주)한독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박물관이자, 전문 박물관입니다. 현재 박물관은 보물 6점과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2점을 포함한 2만 점 이상의 동서양 의약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품 가운데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일람』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과 여성 의료 교육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여사는 1928년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워 여성들에게 의학의 길을 열었고, 이는 훗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 발전해 수많은 여성 의사를 배출하며 한국 여성 의학교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독의약박물관에서는 이처럼 근대 의학의 흐름과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의약 유물을 더 가깝히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 스탬프 투어



스탬프 찍는 방법

- 처음 방문한 장소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챙겨 스탬프를 찍어요.
- 말씀의 길 스탬프를 3곳 이상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려요(선착순 증정).
- 기념품 수령 장소는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기념품 수령 장소

어울리길을 소개합니다!

공감의 길 다름을 견고 마음을 잇다

서로 다른 종교문화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서로 다른 신념 속에서 발견한 공통된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은총의 길 기억의 발걸음

충북의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잇는 여정입니다. 신앙의 역사가 깃든 공간을 걸으며 순교자들의 믿음을 되새기고,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쉬는 길 세계로 걷다

충북의 대표 불교유산을 중심으로 한 여정입니다. 천년 고찰의 전통과 세계적 가치를 느끼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길 홈페이지(<http://www.cbrp.co.kr>)"에서 추억을 함께 나누어요!



홈페이지 QR

집필자

김성수(청주 성서신학원 원장)

전순동(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김정호(청주시 시민에디터)

정기범(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소연(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장)

이지오(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이수영(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말씀의 길 - 벽돌 위에 새긴 마음

발 행 일 2025. 10.

발 행 처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전 화 043-279-5400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6038/>

디 자 인 디자인신화

인 쇄 소문인쇄사

저작권자 ©충청북도·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본 책자의 저작권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 있으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존의 증언, 융합의 여정



어울리길

CHUNGBUKEULRI - GIL